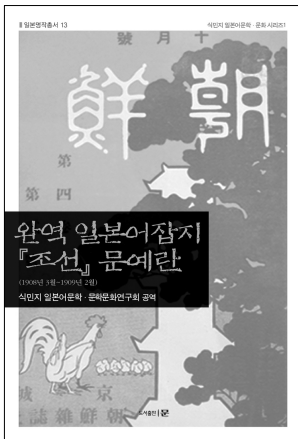


[서평 1(한국어)]

## 식민지 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 역 『완역 일본어 잡지 ‘조선’ 문예란』(문, 2010)



한국의 식민지 시대 연구 가운데, 필요하지만 가장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식민자(the colonizer)인 재조 일본인에 대한 연구이다. 그들을 ‘식민지배자’라고 하지 않고 ‘식민자’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정착형 식민지였기 때문인데, 착취형 식민지에 비해 정착형 식민지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식민(植民)’해 왔다. 서울의 남산이라는 공간은 그러한 계층화된 식민자 사회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성(聖)스러운’ 조선신궁이, 그 아래에는 현세를 관장하는 총독부, 맨 아래에는 상업지구인 혼마치(本町)와 가장 ‘성(性)스러운’ 신마치(新町)가 위치했다. 신관에서부터 관료, 군인, 상인은 물론, 매춘부까지가 모두 식민자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치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배자’라고 하기 어려운 부류의 식민지 본국인들에 대한 연구는, 군사 및 행정 행위와 경제 행위를 중심에 놓은 식민지 연구를 문화와 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전환시킨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 의해 가능해졌다. 이제 군사적 침략이나 통치 행위 및 경제적 착취보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무의식적 구조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주권(主權)에 대한 침해 없이 타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민지 이후(post-colony) 사회의 기원을 보려는 현재적 욕구에서 나온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라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후 일본 정부는 그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민 장려 정책을 펼친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현(縣) 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민을 추진했는데, 통계에 따르면 1905년 말 42,460명이던 재조 일본인은 1906년에는 88,228명, 1910년 말에는 171,543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일본 거류민의 증가와 거류지의 확대는 재조 일본인의 교류와 단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에 따라 이사청(理事廳)이 설치된 부산, 마산, 목포, 군산, 한성, 인천, 평양, 진남포, 원산, 성진, 대구, 신의주, 청진에는 일본인 거류민단이 결성되었고, 주요 지역에는 거류민회나 일본인회가 결성되었다.

월간지 『조선』(1908~1911)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발간된 재조 일본인의 매체였다. 이번 에 번역된, 창간호에서 1909년 2월까지의 문예란을 보건대, 단연 중심은 하이쿠와 한시이

다. 한시는 동아시아 지역 공통의 문화였기에, 여기서는 한일 지식인 사이의 중세적인 문화 교류를 볼 수 있다. 도쿄 청나라 공사관에는 한시를 배우려는 일본 지식인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스에마쓰 군이 성관산장의 모임 석상에서 한국의 김 중추 원 의장에게 지어 보여드리고 각하께 바로 잡아줄 것을 청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정은 은근하고 예법은 너그러”(386면)였다.

일본인 사회, 특히 지방이나 식민지의 문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이쿠나 센류(川柳)였다. 1943년 개편되는 조선문인보국회에서도 하이쿠부나 센류부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 기관지인 『국민시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대 문학 혹은 근대 시라는 표면적인 잔물결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온돌회’라는, 언제·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재조 일본인 하이쿠 모임에 대한 연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실린 것들은 ‘작품’이라 불리기에 한참 수준 미달이다. ‘근대 문학’이란 근대의 엘리트인 부르주아의 전유물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국민 국가 혹은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민(민족) 문학으로서 그 중심은 도쿄이거나 서울이다. 식민자의 문학은 식민지 본국인은 물론 식민지인들이 보기에도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문학에 불과하다. 여기에 실린 근대적인 산문이나 운문을 문학 작품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식민자의 근대적 글쓰기에서 식민지는 어떻게 재현되는가. 이 관점이, 이 책의 편집자나 필자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 책을 읽는데 가장 적절한 관점이 될 터이다. “짐, 어가를 방방곡곡에 대여/진화의 영광을 옮겨 심으리라”(229면)라는 시구에서 드러나듯이 식민지는 기본적으로는 ‘천황의 은혜’=진화=문명을 전파하는 행위이다. 이에 비해 한국민은 “이 땅을 불결하고 추하게 만드”(182면)는 야만적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더군다나 일본의 문명 전파를 저해한다. 의병에 대한 악의적 묘사나 그들을 진압하는 행위에 대한 묘사가 산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선을 내부로 돌리면 그 심리는 착종되어 있다. “모국의 낙오자”와 “신천지의 자유”인 사이를 오락가락한다(지쿠우 표객, 『연락선』). 그 모순과 양가성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를 ‘문명’으로 위치 짓는 것이 식민자였다.

식민자가 모두 식민지배자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군사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행위가 식민자에 의해 뒷받침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물질적인 억압과 착취에 관여했던 식민지배자나 그렇지 않았던 식민자가 모두 공유하고 있던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 이를 해명하기 위해 재조 일본인 연구는 필수적이고, 그렇기에 이번에 발간된 『완역 일본 어잡지 ‘조선 문예란’은 그것을 향한 소중한 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번역을 기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윤대석(명지대 국어국문학과)

## [書評 1(日本語)]

## 植民地日本語文学文化研究会訳

## 『完訳日本語雑誌『朝鮮』文芸欄』(図書出版門 2010)



韓国の植民地時代を対象とした研究において必要とされながらも進展していないのが、植民者である在朝鮮日本人に関する研究である。彼らを「植民支配者」と呼ばずに「植民者」としたのは朝鮮が定着型の植民地であったためだが、搾取型植民地に比べて定着型植民地には確かに多様な階層の人々が言葉通り「植民」して来ていた。ソウルの南山という空間はそのように階層化された植民者社会を端的に表わす事例として挙げられる。一番高いところに「聖なる」朝鮮神宮、その下に現世を司る総督府、一番下には商業地区である本町と最も「性なる」新町が位置した。神官から官僚、軍人、商人はもちろん売春婦までが植民地社会を構成していたのである。

韓国の植民地時代を対象とした研究において必要とされながらも進展していないのが、植民者である在朝鮮日本人に関する研究である。彼らを「植民支配者」と呼ばずに「植民者」としたのは朝鮮が定着型の植民地であったためだが、搾取型植民地に比べて定着型植民地には確かに多様な階層の人々が言葉通り「植民」して来ていた。ソウルの南山という空間はそのように階層化された植民者社会を端的に表わす事例として挙げられる。一番高いところに「聖なる」朝鮮神宮、その下に現世を司る総督府、一番下には商業地区である本町と最も「性なる」新町が位置した。神官から官僚、軍人、商人はもちろん売春婦までが植民地社会を構成していたのである。

統治行為に直接には関わらなかったため「植民支配者」とも言いがたい部類の植民地本国人に対する研究は、軍事や行政および経済行為を中心に据えていた植民地研究を文化と言説の研究に転換させた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によって可能になった。もはや軍事的な侵略や統治行為および経済的な搾取よりもそれを可能にしていた無意識的な構造がより重要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それは主権への侵害なく、他地域へ影響力を行使するような植民地以後(post-colony)の社会の起原を探ろうとする現在的な要求から発するものであった。

一九〇五年十一月十七日に乙巳勅約と言われる第二次韓日協約が締結された後、日本政府は以前よりも積極的に移民奨励政策を推進する。中央政府のみならず県政府や民間に

においても積極的に移民が奨励されたわけだが、統計によると一九〇五年末に42,460名であった在朝鮮日本人は一九〇六年には88,228名、一九一〇年末には171,543名に大幅増加する。日本居留民の増加と居留地の拡大は在朝鮮日本人の交流と団結の必要性を提起した。理事廳が設置された釜山、馬山、群山、漢城、仁川、平壤、鎮南浦、元山、城津、大邱、新義州、清津には日本人居留民団が結成され、主要地域には居留民会や日本人会が結成された。

月刊紙『朝鮮』(1908-11)はこのような背景下に刊行されていた在朝鮮日本人のメディアであった。今回翻訳された創刊号から一九〇九年二月までの文芸欄を見るかぎり、断然その中心は俳句と漢詩であった。漢詩は東アジア地域共通の文化であり、ここからは日韓知識人の中世的な文化交流が見られる。東京所在の清国公使館には漢詩を学ぶつもりで多くの日本の知識人が訪れていたようだが、ここでも「末松樞密城山山莊雅集席上賦呈韓國中樞院議長金公鈞正」に確認できるように、概ね「情殷禮數寛」であった。

日本人社会、とりわけ地方や植民地の文芸のなか、大部分を占めていたのは俳句や川柳であった。一九四三年に改編される朝鮮文人報国会においても俳句部や川柳部が重要な位置を占めており、それは機関誌『国民詩歌』においても同様であった。近代文学あるいは近代詩の表面的な小波の下で、堂々と生きているかか流れに対する研究はこれからの課題だと言えよう。いつどこにでもありそうな在朝鮮日本人俳句会、たとえば『オンドル会』に対する研究などがその始まりとなるろう。

近代文学という観点からすれば、ここに載っているものは「作品」と呼ぶには遥かに及ばない。「近代文学」なるものが近代のエリートであるブルジョアの専有物であったためだが、それは国民国家あるいは民族単位で行われる国民(民族)文学であってその中心は東京やソウルであったのだ。植民地の文学は植民地本国人はむろん植民地人が見るにも時間的・空間的に中心からかなり離れている文学に過ぎなかった。ここに掲載されている近代的な散文や韻文を文学作品という観点からではなく、エクリチュールという観点から見る必要があるのはそのためである。

植民者の近代的なエクリチュールにおいて植民地はいかに再現されるのか。このような見方こそ、本書の編集者や筆者が思うに、この本を読むに最も適切な観点となるであろう。「朕、駕を浦々津々によせて、進化の榮をうつしうゑむ」という詩句が示しているように、植民化は基本的に「天皇の恩恵」=進化=文明を伝播する行為である。一方の韓国人は「此地を徒に不潔なる韓人の醜化する」という野蛮な行為をしでかし、しかも日本による文明の伝達を妨げる。義兵に対する悪意の描写や彼らを鎮圧する行為に対する描写が散文において相当な量をなすのである。しかし、視線を内部に向けるとその心理は錯綜しているのが分かる。「母国の餘り者」と「新天地の自由」者の間を行き来する(竹雨漂客「連絡船」)。その矛盾とアンビヴァレンスを解消するために、自らを「文明」として位置づけていたのが植民者であったのだ。

植民者がそのまま植民地支配者なわけではない。しかしながら軍事侵略や支配行為が植

民者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たのも事実である。実際に物質的な抑圧と搾取に関与した植民支配者や、そうでなかった植民者の両方が共に共有していた意識と無意識の構造、これを解明するために在朝鮮日本人の研究は不可欠であり、今回刊行された『完訳 日本語雑誌『朝鮮』文芸欄』はそのための大事な一歩となるであろう。まだ翻訳されていない部分の翻訳を期待するのもそのためである。

尹大石(明知大・国語国文学科)